

연중 제20주일

제 1 독서 : 예레38, 4-6. 8-10

제 2 독서 : 히브 12, 1-4

복 음 : 루가 12, 49-53

# 순정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히브 12, 2).

## 강론

### “불을 지르러 왔다”

정천봉 신부 / 군중 오뚜기 성당

낙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기본권 조항에 정면 위배되며 나아가서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창조질서를 배척하는 죄악이라는 주교단 성명서가 있었다. 군중교구를 포함한 전교구에 걸쳐 낙태 반대 서명운동의 열기가 확산되어 플랭카드가 나붙고 신자도 몇 사람 안되는 이곳 군인 성당에까지도 서명용지가 도착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며 이러한 태도는 한 사람의 생명도 우주와 맞바꿀만한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과 그러기에 못 생명을 집단적으로 제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현실은 물질만능과 인명경시 풍조 속에서 고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아침 펼쳐보게 되는 신문에서도 오늘은 또 어떤 사건, 사고 소식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생명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하느님의 영역이다. 신자 개개인은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는 최전방에 선 군인이다. 이 대열에서 벗어나 가장 커다란 죄에 가담하는 낙오자가 있을 때 교회의 전력은 상실되며 전선에는 이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적지 않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죄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것은 심각한 이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신자 개개인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해봐야 할 때인 듯싶다.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유혹은 “남들도 다 그런데 뭐...”라는 생각이다.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죄스러운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고 선택이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과 포기 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교회의 역할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명백히 진리를 선포하고 악에 대해 과감하게 뿌리치며 “이건 분명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 소리

### “세계 7위와 세계 1위”

1주일 전쯤 막을 내린 올림픽 얘기는 눈귀가 아프도록 보고 들어서 이제 식상할 때도 됐지만 한마디만 더해보기로 하자. 도덕군자가 아니라면 이겨서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머지 11개는 보너스로 치더라도 마지막 한 개 마라톤에서의 금메달은 너무도 값진 것이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왔다는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느니 하며 모두가 감격을 함께하지 않았던가.

다 지난 잔치마당에 고추가루를 뿌릴 생각에서가 아니라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만도 메달수로 세계 7위를 차지한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로는 이보다 훨씬 앞서는 세계 1위 국가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미혼모들의 기아로 해외 입양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 고아가 매년 1만명을 헤아린다니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몇몇 뜻있는 이들은 서울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들떠 있던 88년 어느 가을날 외국신문에서 이같은 보도를 보고 ‘미혼모의 집’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영광의 대가는 너무나 비싸다. 어떤 재벌은 후원을 맡은 경기종목을 육성하는데 지난 10년간 1백억원이나 쏟아 부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 국민의 세금에서 올림픽 출전에 쓰여지는 금액이 얼마나 큰 규모일 것인지 따진다는게 무의미할 것이다.

세계 몇 억 또는 몇 십억의 눈길이 쏠리는 마당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국위를 떨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고아의 머릿수를 하나라도 줄이는게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

### 순정이 산책



###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세 4, 9-16)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다른 형제에 대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추궁하는 말씀이다. 죽은 동생 아벨에 대한 하느님의 추궁에 카인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댔던 아담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며 거칠게 항의한다. 아직도 질투로 인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제물을 받아주신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 이 항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카인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자 땅이 그 피의 원성을 듣고 소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하신다. 곧 아벨의 피를 마신 땅이 카인에게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고 카인으로 하여금 그 위에서 방황하게 함으로써 이 형제 살인자에 대한 형벌의 도구가 되고 있다. 고대 근동인들은 살해당한 자의 피가 살인자를 반드시 밝혀낸다고 믿고 있었다. 살인자가 시체에 가까이 가면 피가 다시 흐르면서 울부짖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 토속적인 믿음을 하느님 앞에선 어떤 범죄도 숨겨질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발전시킨다.

카인은 떠돌아다니다 ‘놋’이라는 곳에 도착한다. 놋은 가상의 지명인데 히브리어로 ‘떠돌아다니다’는 뜻의 ‘나닷’(nadad) 동사와 연결된다. 이는 카인이 떠돌아다니다 정착하게 된 곳이라는 뜻인데 이제 카인은 하느님의 얼굴을 더 이상 뵈옵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카인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하지 않고, 카인을 안심시키며 그에게 구속자, 히브리말로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은 카인의 이마에 표를 찍어주시는데 이 표는 그가 살인자라는 고발과 수치의 표가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하느님은 카인의 ‘고엘’(구속자)이 되어주심으로 피의 복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신다. 생명과 구원으로 인류를 이끄시겠다는 하느님의 의지는 죄로 방해는 받지만 근본적으로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이 동료의 생명이 손상을 입혔을 때 반드시 책임은 추궁하시지만 피의 복수로 또다른 생명이 단절되는 것은 바라지 않으신다.



카인이 방황하는 모습

카인은 아벨을 살해한 땅에서 물러나와 동쪽 놋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세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에녹’이라 부른다. ‘에녹’은 ‘시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같은 어근인데 이는 ‘에녹’이 카인의 첫번째 아들이 되고 그의 이름을 따서 첫도시가 건설된 사실과 연관된다.

카인의 족보에는 일곱 세대의 이름이 나온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카인의 이야기에서 자주 반복된다. 카인을 죽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실 것이고, 카인의 여섯번째 후손인 라멕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 일흔 일곱 갑절로 복수하겠다고 공언한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언급한 그 자신의 폭력적인 성격은 노아 때까지 증폭되어 폭력의 상황을 예고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이런 폭력의 증대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p>공예가구 <b>아 씨 방</b> (이리 대리점) 류 경 선(요 한) 전 춘 자(수산나) 이리시 신동 806-7 ☎ 858-0196</p>	<p>치질 전문 치료 <b>서울의원</b>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p>	<p>교육청 신고 2564호 <b>우리 한문 교실</b> 어린이 한자, 사자소학, 천자문, 명심보감 등 효자동 서원국교 후문 사거리 문 해 영(파비올라) ☎ 224-5907</p>	<p><b>동서로삼익피아노</b> 종합 악기 판매장 (피아노, 전자올젠, 음향시스템 전문매장)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p>
---	--	--	---

5분 교리 ⑮

“삼위일체 하느님”

몇 십년 전 시골 본당의 관광성사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할머니께서 하느님이 몇 분 계시냐고 묻는 신부님의 질문에 “내가 영세 받을 때 성부는 할아버지였으니까 지금은 두 분만 계시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요리강령이란 책에 삼위일체를 나타낸 그림이 그랬던 것이다. 성부를 할아버지로, 성자는 청년으로, 성령은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냈었다. 이렇게 인간의 표현은 아무리 해도 한계를 드러낸다. 하느님은 유일한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한 분 안에 성부·성자·성신 삼위가 계신다 함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

하나이며 여러이고, 같으면서 다르시다는 이 삼위일체 교리아말로 신앙의 신비 중에서도 핵심교리이다.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앙으로만 받아들여지는 현의이다. 그러나 올바른 이성적 탐구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성이 신앙의 비추임을 받아 진리를 추구할 때에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선물을 힘입어 신비에 대한 어떤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 해도 어디까지나 신비는 신비인고로 우리의 이해는 배일에 가리워져 있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성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기억과 앎과 사랑이라는 세 기능의 상호관계를 들어 훌륭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우주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삼위가 모두 함께하시는 행위이나 고유하게 ‘창조의 권능은 성부께, 지혜의 사업은 성자께, 사랑의 사업은 성령께 돌려드리는 것을 귀속(歸屬)’이라 한다. 이 뜻 모를 설명을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한 분이 삼위로 공존하며 동시에 셋이 하나일 수 있는 공동체의 일치의 비결인데 그것은 사랑으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다. 참된 사랑은 나누고자 하며, 하나되고 싶어한다. 또 그 사랑의 결합은 반드시 열매를 낸다는 것이다. 인류의 창조와 구원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작품이요 열매이며, 모든 가정과 다양한 공동체들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반영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 참고 자료 : 하느님·성부와 성자와 성령(책)

교구 소식

※ 태아생명 보호운동 비디오 상영 : 8월17일(월) 오전10시, 19일(수)·21일(금) 오전10시·오후4시 가톨릭센터 휴게실.

1. 여성 39차 꾸르실로 : 8월20일-23일 천호 피정의 집.
2. 태아생명 보호미사 : 8월17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문의-행복한 가정운동(85-5098).
3. M.E. 소개모임 : 8월22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3층 M.E. 사무국.

※ 축! 영명 : 20일(성베르나르도) 소순형 신부님, 21일(성비오) 문선구 신부님.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 8월17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제목-천사들의 합창, 회비-500원.

- **성소모임** 가리띠스수녀회 : 8월23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 (0653)54-2636.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72-5266.  
성바로딸수도회(피정) : 9월6일, 문의-성바로 서원 (0652)252-339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낙태-살인보다 무서운 죄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창조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절대하지 맙시다.

요심이(993) 김병오



사무장 구함

1. 제출 서류 : 이력서 1통, 본당신부님 추천서
2. 제출 기한 : 1992. 8. 29.
3. 연락처 : (0653)861-0165

함열 천주교회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배 큰 것

- ① 판매기간 : 8월20일-10월20일
- ② 규격 : 8kg당 1박스
- ③ 가격 : 특 20,000원, 내 17,000원 중 14,000원, 소 8,000원
- ④ 주문처 : (0658)43-0880 사제관 원평성당 최용준 신부

방송애프 시공의 선두업체 인켈PA·비디오 촬영 전문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남(데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안경 콘택트렌즈·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보당  
고사동 오거리 ☎84-4138,  
253-0707  
손한성(바로로)  
정정님(가타리나)

샤넬안경원

이순구(도미니코)  
정병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뒀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대화아채 효소 전복지사

체질 개선  
김영희(실비아)  
관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여름방학 대강좌

전문대  
개강 9월 1일

대입문 필항생학원  
전주 74-7424 코어 후문 시험사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연중제2주일(낙태반대서명에 적극 참여합시다)  
1. 신부님휴가: 17~19일, 17일-새벽미사, 18,19일-미사없음.  
2. 반희정경질(중노1반): 양혜남(엘리사벳)→정경옥(테오도라) 수고하시겠습니다.  
3. 중·고교리경시대회: 23일 후2시.  
4. 모임: 여성연합회(18일 전10시30분)  
5. 감사: 박일천(요한)-선풍기 기증.  
6. 유수녀님, 사무장 휴가: 17~22일.  
7. 금주청소: 남노3,4반  
차주청소: 남노5,6반.  
☐ 지난주 봉헌금: 845,430원 ☐ 교무금: 582,5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성지순례: 9월27일, 장소: 배티, 회비 8,000원, 미리 신청바랍니다.  
2. 평일미사 없음: 17~21일  
3.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오늘  
4. 회합: ①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20일 오전10시  
③빈첸시오회-22일 오전10시  
금주전례: 해설-유두석, 독서-김현덕씨 부부,  
봉헌-신태섭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안철조씨 부부,  
봉헌-김용식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18,900원 ☐ 교무금: 846,8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 축! 영세·첫 영성체: 21명 축하합니다.  
1. 성서교실 개강: 20일(목) 저녁미사 후, 2. 청년회: 공식미사 후, 3. 성가정회: 18일(화) 저녁미사 후, 4. 수녀원 신축헌금: 신입-3,832만원, 봉헌-889만원, 5. 장년회: 22일(토) 저녁미사 후, 6. 설서읽기: I 열왕 12장-22장 7. 금주청소: 순교자의 모후Pr. 8. 감사: 영명축일과 본당의 날 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성모상 봉헌-왕대호(도마)형제님, 9. 금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김봉길, ②최영숙, 봉헌-김한철, 이수복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남현준, ②오귀남, 봉헌-남창덕, 강순용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28,700원 ☐ 교무금: 19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연중제2주일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전례부-8월20일 목요일 오후8시, 3. 알림: ①봉성체-8월19일(수) ②교무금-신자들의 의무인 교무금을 소홀히하여 전년도분도 전혀 봉헌치 않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 쓰고 나머지를 내려는 생각마시고 하느님께 먼저 바칩시다, ③진·출입자는 교적정리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적립 사무실로 오셔서 권·출입 신고 바랍니다) ④낙태반대 서명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⑤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는 혼인강좌 필히 이수 하시기바람(가톨릭센터)  
☐ 지난주 봉헌금: 752,350원 ☐ 교무금: 61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첫 영성체 및 어린이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2. 첫 영성체 할 어린이들 만남: 8월20일(목) 저녁7시.  
3. 통신교리 이수자 신청바랍니다.  
4. 청소·봉사: 2구역-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619,330원 ☐ 교무금: 972,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1. 금주: ①바리의 성모 꾸리아(오후2시)  
2. 성모회: 19일(수) 오전11시.  
3. 레지오 목회 행사: 다음주(23일) 오전8시 집합. 준비물: 미사 도구, 장소: 지리산, 본당미사: 새벽5시30분, 오후3시, 저녁7시.  
4. 감사합니다: ①에어콘 설치비-120만원 김인준(젬마) ②2층창 스테인드 글라스-370만원, 고 이병복(도마) ③전례복 대금-100만원, 김기숙(테레사)  
☐ 지난주 봉헌금: 1,895,48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규

1. 부제, 신학생 귀교: 23일, 착한 목자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2. 여성 39차 꾸르실로 김승희: 20일~23일 김성규, 정병순.  
3. 환자 봉성체: 20일 전9시, 환자를 모신 가정은 접수 바람.  
4. 빈첸시오회: 22일 전10시30분 전입신자 가입 환영합니다.  
5.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23일 전10시, 빛따라, 교리교제  
6. 김 요셉피나 수녀님 휴가: 17일~23일  
7. 회의: 청년회-16일 후8시, 성모회-19일 어머니미사 후, 웁드레아-23일 공식미사 후.  
8. 의명의 은인회 감사: 건축헌금 50만원 감사합니다.  
9. 다음주일(23일)은 신자된 의무를 다하는 날입니다.  
10. 사무원 휴가: 17일~21일.  
☐ 지난주 봉헌금: 925,760원 ☐ 교무금: 553,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18일(화)오전-성원골드, 오후-윤남, 저녁-삼정, 13 19일(수)오전-화산1, 오후-신일.  
3. 청년회: 다음주일 미사 후.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이미화, 박태희.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최복희, 최영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모임안내)  
1. 자모회: 19일(수) 10시30분.  
2. 꼬미시움: 22일(토) 후3시.  
※ 성전정화사업비 신입을 못하신분 사무실에서 접수.  
-알림-  
1. 차량을 가지신분: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차량운행을 삼가바람  
2. 봉성체: 8월중 정기 봉성체는 없습니다.  
(미사안내)  
금주: 모든 성인의 모후, 성실하신 모후  
차주: 지혜로운신모후, 찬송하옵모후(독서, 기도를 곁잡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27,160원 ☐ 교무금: 1,713,38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본당신부님 휴가: 17일(월)~21일(금) ※ 본당신부님 휴가기간 동안 박보나 수녀님께서 말씀의 전례와 영성체를 해주시겠습니다.  
2. 예비자교리: 26일(수) 저녁미사 후 있음.  
3.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4. 성전건축위원 단합대회: 23일(일) 12시 성당출발.  
※ 차주모임-반석회  
※ 신축헌금봉헌액-1,210,000원  
금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이필진, ②신미향, 봉헌-안내-김갑수 부부, 정학기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엄정준, ②이인숙, 봉헌-안내-오우진 부부, 안분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02,560원 ☐ 교무금: 878,000원